

레저 & 트래블

새해 소원 빌기 좋은 곳 '부여 미암사'



미암사는 37m의 세계 최대 청동와불과 소원을 빌면 성취한다는 쌀바위가 유명해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불가사의한 길상 많아 (吉祥) 福과 희망주는 '도량'

2007년 새해가 밝아왔다. 올 해는 '황금돼지띠'라고 해 유난히 돈과 관련된 덕담이 많다. 해돋이를 보며 한 해 소원을 기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되세요'로 신년 덕담을 건넨다.

벽을 이룬 암벽에서 떨어 나왔다는 전설로 인하여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일명 응석석, 촛대바위, 부처바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으로 부자쟁이로 구멍을 후벼팠더니 쌀은 나오지 않고 핏물이 흘러 주변이 핏빛으로 물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쌀바위에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를 내리는 듯 지금도 핏자국이 선명하다.

세계 최대 청동와불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71호로 지정되어 있는 미암사(米岩寺)는 뒤편에 있는 깎아지른 듯한 천애의 절

벽에서 이룬 암벽에서 떨어 나왔다는 전설로 인하여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일명 응석석, 촛대바위, 부처바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으로 부자쟁이로 구멍을 후벼팠더니 쌀은 나오지 않고 핏물이 흘러 주변이 핏빛으로 물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쌀바위에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를 내리는 듯 지금도 핏자국이 선명하다.



소원을 빌면 성취한다는 쌀바위.



1과에서 3과로 증과된 진신사리.

사가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정작 영험한 절로 소문이 난 때는 진신사리탑이 크게 일조했다. 진신사리는 1997년 9월 당년 13세의 자명린포체스님(극적은 부탄이며 놀린포체의 환

(願)를 봉안했다. 이 진신사리는 2004년 한국최대와불 준공무렵 사리를 친견했을 때 3과로 증과해 불가사의 한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무렵 때 아닌 동지살때가 미암사 주변에 가나리 꽃들이 어지거기 만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암사는 이처럼 불가사의한 길상들이 많이 일어나 발길 닿는 곳이 전부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듯 하다.

진신사리 분과 '신비' 생불)이 해외만행차 한국에 들렀을 때 육천거사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해 12월에 육천거사가 만경 대장사 크스님을 수행하고 대안에서 주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 평화통일기원반회에 참석하고 귀국해 그 기념으로 1998년 3월에 기증해 미암사에 1과

를 봉안했다. 이 진신사리는 2004년 한국최대와불 준공무렵 사리를 친견했을 때 3과로 증과해 불가사의 한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무렵 때 아닌 동지살때가 미암사 주변에 가나리 꽃들이 어지거기 만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암사는 이처럼 불가사의한 길상들이 많이 일어나 발길 닿는 곳이 전부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듯 하다.

전라도 맛 기행

무안 사창리 '두암 돼지 짬뽕구이'



석쇠에 담긴 삼겹살은 짬뽕에 구워지면서 독특한 맛을 간직한 먹거리로 거듭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벗짬뽕 스며든 '고향의 맛'

삼겹살·양파김치·게소스 '삼합'도 일품

육류는 원래 구워야 제맛이다. 씹박한 맛으로 치자면 돼지고기 삼겹살이 으뜸이다. 삼겹살의 맛을 살리기 위해 숯불, 연탄불, 장작불 등 갖가지 화력을 총동원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식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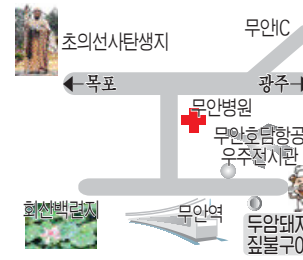
그렇다면 시골 초가지붕을 엮은 벗짬뽕을 말뚝삼아 구운 돼지고기 맛은 어떨까?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 가면 짬뽕로 삼겹살을 굽는 '두암 돼지 짬뽕구이' 집이 있다.

식당주인 정소래(50)씨가 허름한 창고에 쌓아둔 벼단에 불을 당긴 후 석쇠에 담긴 삼겹살을 날렵하게 뒤집는다. 불길을 가늠하며 고기를 굽는 솜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60년 묵은 손길일 수 있게 한다.

사남께 촉촉한 불길을 받은 삼겹살은 기름기가 쫄뻑하면서 늘 짭짤하게 익어간다. 그사이 쪼이 타면서 피어오르는 짬뽕 냄새가 고기에 깊숙이 배어든다. 벗짬에 그을린 냄새가 그득한 삼겹살은 훌륭한 맛은 물론이고 '고향의 맛'이라는 상상적인 미감까지 일깨워준다.

주인장이 권하는 삼합의 맛에 입이 호사한다. 작은 바닷게를 갈아 만든 양념 소스를 고기에 바른

맛 : ★★★★★  
분위기 : ★★★  
가격안목 : ★★★★★  
(☆ 5개 만점)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정우부동산
남구 석정동(전) 1876평 매도
도곡 전원주택부지 147평 매도

중개법인 리치부동산리치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담 10,123㎡(3,062평)
농업보호구역
평당 30,000원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부자의 최적이입이다
나주 남평면 노동리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급매매
첨단 삼소동
첨단인근 30m도로접
1000평 공장·창고부지적합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평당 8천 8백 원
평당 140만원
국산 선진건물 5000평

하이링크 컨설팅
구해드립니다
▶팔아드립니다
토지
상부지구상업용지
(회사사육,병원,학원,석당 등)